



| 발행 일자 | 2017년 11월 27일

| 발행 인 | 별별신문_ 용, 유나, 별, 달래, 차차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 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별별신문

35호 이태원

안녕하세요, 용두동 이루미들이에요!

매달 소소한 물품을 갖고 언니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언니들에게 전달된 미스트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미스트는 대구에 위치한 '야물딱 공방'의 참여 여성들이 손수 정성껏 만든 친환경 천연 제품
이라고 해요. 참여 여성 중 아로마팀은 다양한 친환경 화장품을 신타래팀은 섬유공예품을 만
들며, 여타 공방과 달리 단순히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닌 특별
한 공간입니다. (뒷면에 계속)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들이 가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톡'을 찾아주세요!

화톡



‘야물딱 공방’은 대구여성인권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생생이랑’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대구여성인권센터에서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가나 성매매로 인한 건강문제, 빚문제나 여타 법률적 해결이 필요한 여성을 만나면서, 당장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할 때가 발생하였고, 이를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리하여 지금의 ‘생생이랑’은 참여 여성들에 대한 생계 지원 외, 여성들이 지금까지 살아낸 자신을 돌아보고 차분히 몸과 마음을 보살피고, 진로를 찾거나, 필요하다면 학력을 취득하고(쓱쓱공부방 운영), 당면한 부채문제나 대인관계 등을 해결하고, 필요한 사회적 자원과 정보를 찾는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여성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함께 하는 과정 가운데 공방에서 친환경 화장품과 공예품을 주문제작 하고, 그 수익금은 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생이랑’은 개인의 힘을 기를 뿐 아니라, 성매매 경험이 여성차별, 빈곤, 열악한 사회복지 등 제반 사회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성주의적 관점에 기반하여 돌아보고,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을 낙인찍은 사회적 책임을 제기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는,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철학을 가지고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생생이랑’과 ‘야물딱공방’이 운영되기까지 대구여성인권센터와 만난 참여 여성들의 시간들이 미스트에 오롯이 담겨 전해지는 것만 같아요.

겨울의 건조한 느낌이 미스트로 잠시라도 촉촉해지기를 바라며,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언니들~ 12월에도 봐어요!

-용두동 이루미들 드림

무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 일수, 사채 빚 등으로 힘들어 파산을 고민 중일 때, 병원을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담일 때, 빚쟁이들의 독촉 때문에 힘들 때, 전화주세요. 경찰조사 동행,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해 드립니다.

철저한 비밀보장

이룸상담소 02-953-6279